한국과 미국의 경제관련 중등 교과서 비교

- 지식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읽기 이해 중심으로 -*

이 병 민**

< 次 例 >

I. 들어가는 말
II. 배경 연구
III. 연구 방법
IV. 비교 분석 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말에 교재(敎材)와 교과서(敎科書)라는 두 개의 단어가 존재한다. 이 두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으로,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책을 가리킨다. 반면, 교재는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라고 하며, 교과서를 포함한 일반적인 학습용 책을 가리킨다.[1] 물론 이런 구분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년도-330-2012S1A3A2033717)

**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1) 용어에 대한 설명은 네이버 인터넷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992900)을 인용하였다.

대학 강의에서 사용되는 책을 대개 교재라고 부를 뿐, 그것을 교과서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2)]

이처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맥락에서 교과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교과서는 때로 교육과정을 대표하는 상징물이기도 하며, 교수요목(syllabus)을 나타내기도 하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의 모든 것이기도 하다. 또한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평가의 주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서 교과서가 갖는 이런 특별한 성격 때문에 교과서의 집필이나 내용은 더 정성을 들여야 하며 내용의 기술이나 설명 그리고 제작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주로 교과서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주요한 읽기 교재로서의 역할을 한다(Britton, Dusen, Gulgoz & Glynn, 1989).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기술된 영어 표현이나 담겨진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경우는 있지만, 교과서가 과연 어느 정도 학생 친화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얼마나 지식의 습득이나 읽기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되었는지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박복순, 2005; 주태연, 2008; 최소옥, 1999).[3)]

한편, 우리나라에서 읽기 교육은 주로 국어교육에 한정되어 다루어졌다(노명완, 1996). 그러나 읽기 교육은 국어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다른 내용교과에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책을 통해서 지식을 흡수하며 책이 지식 전달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환경에서 읽기 교육은 모든 지식을 다루는 내용교과에서 더욱 필요하다(Vitale & Romance, 2007).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과서가 학교 교육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지식을 습득할

---

2) 영어에는 학교의 구분에 따른 차이가 없다. 영어는 대개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textbook' 또는 'coursebook' 이라고 부르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맥락에서 서로 달리 사용하지 않는다.

3) 이들 연구들은 주로 석사학위논문 수준에서 다루어진 것들로 대부분 교과서 텍스트의 특성과 학업 성취나 이해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

수 있는 주요한 창구 역할을 하는 면에서 읽기 교재로서 교과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술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저술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Beck, McKeown, Sinatra, & Loxterman, 1991; Britton, Dusen, Gulgoz & Glynn, 1989).

한편, 우리나라 교육에서 창의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창의성은 개인의 잠재력 향상이라는 교육 본래의 가치뿐만 아니라(Fasko, 2000-2001),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소경희, 2003; 이혁규, 1998; 최용규, 1998). 창의성은 학교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어느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과 그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적 업적을 낳는다는 면에서 학교 교육에서 지식과 창의성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대개 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낳거나 창의적 작업을 수행했던 사람들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 분야에서 상당 기간 동안 종사한 경우이다(Ericsson, Krampe & Tesch-Romer, 1993). 그런 면에서 해당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은 새로운 창의적 작업이나 결과물을 낳기 위한 토대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경제 교과서에 주목하고자 한다. 경제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다루는 학문으로 구체성을 가진 분야이다. 특히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핵심 개념 및 지식을 가르치고 현실의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교재로서 교과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나 지식을 명확하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런 잘못된 이해나 충분하지 못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의 확산이나 적용 및 창의적 문제해결은 많은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Bransford et al., 2000; Hirsch, 1996).

본 연구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경제관련 교과서를 미국 교과서와 비교해봄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경제와 관련한 지식이나 정보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미국 교과서와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배경 연구

1. 교과서와 교과서의 읽기 이해

교과서 텍스트의 이해와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영미권에서 교과서 텍스트의 흥미나 이해 및 기억과 관련한 연구들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읽기 이해의 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들이다. Walczyk과 Hall(1989)의 연구를 보면, 어떤 설명문을 읽을 때 사례와 함께 질문이 제시되면 학생들이 읽기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해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텍스트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질들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보면, 교수용 그림이 교수용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Armbruster, Anderson, Meyer, 1991; Guri-Rozenblit, 1989; Montanero & Lucero, 2012; Trabasso & Bouchard, 2002),

이밖에도 기존의 교수용 텍스트의 이해도나 기억을 돕기 위해서 텍스트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텍스트 수정과 텍스트 이해도나 효과와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텍스트의 여러 요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거나(Beck et al., 1987), 주제와 관련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Beck, Omanson, & McKeown, 1982), 어떤 특정한 지식이 텍스트의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Anderson, Reynolds, Schallert, & Goetz, 1977), 애매모호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텍스트의 지시어나 연결어구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지 못한 경우(Black & Bern, 1981; Kintsch, Mandel, & Kozminsky, 1977), 불필요한 내용이나 사건이 포함된 경우(Schank, 1975; Trabasso et al., 1984), 매우 중요한 개념을 압축적이고 응축해서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경우(Kintsch & Keenan, 1973; Kintsch, Kozminsky, Streby, McKoon, & Keenan, 1975) 등이 교과서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저해하는 요소들로 지적되었다.

또한 직접적으로 교수용 텍스트를 수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텍스트를 누가 어떻게 수정했을 때,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언어 전문가인 언어학자, 대학의 작문 강사, 그리고 다양한 흥미 있는 글을 많이 써본 경험이 있는 타임-라이프(Time-Life)지의 저자들이 수정한 텍스트 중에서 대학의 작문 강사가 수정한 글이 학생들의 흥미나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Duffy, HIggins, Mehlenbacher, Cochran, Wallace, Hill, Haugen, McCaffrey, Burnett, Solane & Smith, 1989).

이처럼 교과서는 단순히 교과 지식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내용을 위주로 누구나 집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가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로서,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중요한 읽기 자료로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식이나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읽고 이해하기 쉽게 집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과서들이 그런 점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다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저자가 이해하기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4)]

2. 창의성과 지식

수많은 학자들이 창의성을 정의하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창의성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Bohm,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을 이해하고 정의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졌다(Gomez, 2007; Mumford, Medeiros & Partlow, 2012). Mumford, Medeiros & Partlow(2012)는 일반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창의성 개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창의성은 복잡하고, 새롭고, 잘 정의되지 않고, 거칠게 조직된 문제들에, 높은 수준의 고유하고 수려한 해결을 낳는 것과 관련이 있다.[5] (Mumford, Medeiros & Partlow, 2012: 30)

이들은 복잡하고, 새로운, 잘 정의되지 않고, 제대로 문제로서 조직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와 같은 사회과 교과목의 특성과 관련하여 조국남과 박성혁(2005)은 사회과 과목에서 창의성을 "창의적 문제해결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과 과목 특히 경제 관련 분야는 창의성과 관련하여 창의적으로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이런 문제해결력으로서 창의성은 지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

4) KIS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교과서', '읽기', '교육심리'를 통합한 키워드 검색에서 단 한 편의 논문도 검색되지 않았으며, '교과서', '교육심리'에서도 한 편도 검색되지 않았다. '교과서', '읽기'로 검색했을 때, 5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지만, 해당 내용교과의 학술지 이외의 교육심리나 국어교육 분야에서 연구된 논문은 한 편(이성영, 2011)에 불과했다.

5) 원문 "creativity is held to involve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original, and elegant solutions (Besemer & O'Quin, 1999; Christiaans, 2002) to complex, novel, ill-defined, or poorly structured, problems (Mumford & Gustafson, 1988, 2007)."

Sternberg(2006: 88-90)에 따르면, 창의성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다음의 여섯 가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1) 지적 사고 기술, (2) 지식, (3) 사고 유형, (4) 성격, (5) 동기 그리고 (6) 환경이다. 이 여섯 가지 특성 중에서 지식은 나머지 다섯 가지의 사고 유형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지식과 창의적 문제해결, 창의적 속성과 지식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다뤘다(박창남·이승철·류형선, 2012; Baer, 2003; Cho & Kim, 2012; Hass & Weisberg, 2009; Jeon, Moon & French, 2011; Kousoulas, 2010; Marsch, Ward & Landau, 1999; Mumford, Medeiros & Partlow, 2012; Rich & Weisberg, 2004; Sak & Maker, 2006; Wu, Cheng, Ip & McBride-Chang, 2005). 이런 논의의 핵심은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정보가 뒷받침 되어야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Baer, 2003; Ericsson & Moxley, 2012; Mumford, Medeiros & Partlow, 2012; Policastro & Gardner, 1999; Rich & Weisberg, 2004; Weisberg, 1999).

물론 특정 분야의 지식이 반드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식이 그 자체의 프레임에 갇혀서 때로는 창의적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어느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과 그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적 업적을 낳은 경우가 많다. 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낳거나 창의적 작업을 수행했던 사람들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 분야에서 상당 기간 동안 종사한 경우이다(Ericsson, Krampe & Tesch-Romer, 1993). 그런 면에서 해당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은 새로운 창의적 작업이나 결과물을 낳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이처럼 교육 분야에서 지식의 습득, 창의적 사고 및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다루고자 하는 분야에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의 설명이나 도움과 함께 독

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려면 학생들은 사실, 개념,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Hunter, Bedell-Avers, Hunsicker, Mumford & Ligon, 2008).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교과서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읽기 교육의 차원에서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의 교과서들이 개념 이해, 지식의 습득, 창의적 문제해결, 흥미 등을 어떻게 고려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학생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관련 교과서를 지식의 습득과 읽기 이해라는 측면에서 두 나라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우리나라와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제 교과서를 비교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관련 교과서로 법문사의 『중학교 3학년 사회』, 교학사의 『고등학교 생활경제』, 도서출판 씨마스의 『고등학교 경제』, 비상교육의 『고등학교 사회』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경제 관련 교과서로는 McGraw-Hill의 『*Contemporary's Economics*』와 McGraw Hill Glencoe의 『*Economics: Today and Tomorrow*』, 같은 출판사의 『*Economics: Principles and Practices*』, 그리고 Prentice Hall의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이하, *EPA*로 줄여서 사용함)이 상대적으로 구입이 용이한 교과서였다. 이들 교과서 중에서 비교를 위해서 비슷한 학년 수준과 내용을 다루고 있고, 경제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 중에서 생활경제를 대표하는 교과서와 고등학교 경제를 대표하는 교과서

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최종 선정된 우리나라 경제 교과서로는 교학사의 『고등학교 생활경제』와 도서출판 씨마스의 『고등학교 경제』였고, 미국 경제 교과서는 Prentice Hall에서 발간한 *EPA*였다.[6] 이들 세 교과서는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기준 즉, 대상 학년이 비슷하고, 다루고 있는 내용도 공통점이 많았다.

양국의 경제 교과서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체 교과서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선정한 내용은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희소성(scarcity)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다룬 부분이었다. 이 두 주제는 이들 교과서의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으며, 다룬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하기에 적절했다. 물론 경제 전문가가 아닌 저자의 입장에서 다른 개념보다 이 두 개념을 다루는 것이 내용적으로 용이한 측면도 고려되었다. 비록 전체 교과서의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들 교과서들이 비교적 일관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분량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적 이들 교과서들의 비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하기보다 다루어진 내용이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들 교과서를 비교할 때 첫째,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의적 문제해결에 토대가 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제시된 내용이나 활동이 얼마나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텍스트의 구

---

6)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고등학교 경제는 사회 교과의 하나로 편성되어 있다. 반면, 생활 경제는 교양과목(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 성장)의 하나로 편성되어 있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2005년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의 약 15%에 해당하는 207개교 약 45,000명 정도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채택하고 있는 교과는 아니다.

성, 제시된 내용의 명확성이나 응집도, 다양한 예시의 제시 등은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서 고려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Ⅳ. 비교 분석 결과 및 논의

1. 양국 경제 교과서의 구성

EPA 경제 교과서는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로서, 이 교과서는 총 592쪽으로 일곱 개의 대단원은 1장 '경제학이 무엇인가'부터 18장 '경제발달과 전환'까지 총 1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과서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념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와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교과서의 구성을 보면 Preview, Go Online, Key Terms, Economics Journal, Building Key Concepts, Fast Fact, Economic Profile, Section Assessment, Check for Understanding, Global Connections, Progress Monitoring Online, Skills for Life, The Wall Street Journal(Classroom Edition), Real-Life Case Study, Chapter Assessment 등이 교과서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이 밖에도 교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색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Using Graphic Organizers 및 주요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점검하는 Reviewing Main Ideas가 제공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각 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나 정보를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고, 제시된 지식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조화(restructuring)하는 것을 돕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들이다.

이 밖에 교과서에 제시된 기본 개념이나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Critical Thinking, 실제 현실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Problem-Solving Activity가 제시되고, Skills for Life,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제와 관련한 기사를 경제전문 신문인 *The Wall Street Journal*에서 가져와서 내용을 찬반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각자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눠 토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과서가 하나의 종합적인 자료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제시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과서는 총 238쪽으로 미국 교과서와 비교하면 1/2 정도 분량이며, 전체 여섯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7] 대단원은 다시 네 개나 다섯 개의 소단원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과서에서 나타난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경제학이나 경제와 관련해서 제공되는 내용이나 설명이 비교적 압축적이고 간단하다. 둘째, 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일부 기본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간단하게 설명한 경우가 많다. 제시된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예시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며, 뒤에서 제시되는 중요한 개념이 설명이 없이 앞에서 미리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교과서 내용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기술되었기보다는 이 분야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교사나 집필자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살

7)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는 일종의 교육과정의 기능을 대신하며, 한 학기 실러버스의 역할도 한다. 즉,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다루는 것이 기본적인 학교 교육방식이다.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 주어진 시간 안에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대개 한 학기 또는 일 년에 가르칠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 교과서에 비해서 분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펴볼 것이다.

교과서에서 제시된 주요 활동은 탐구 활동, 내용 정리, 내용 정리를 위한 평가로 소단원마다 제시되어 비교적 단순하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대단원의 단원 3의 '합리적인 선택의 의미와 절차'를 보면 탐구 활동이 다섯 개 정도 있다. 물론 다른 단원에서는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탐구 활동이 일반적인 구성이다. 경우에 따라서 탐구 활동 이외에 사례 학습이라는 항목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다루어진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경우도 있다. 대단원을 마무리할 때는 '대단원 마무리'라는 활동이 제시된다. 이 활동은 대개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탐구 활동과 유사한 형태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활동이다.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사회과 과목의 하나인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도 『고등학교 생활경제』와 비슷한 구조로 전체 분량은 비슷하며, 대단원으로 구성된 여섯 개의 장이 있고, 각 장은 다시 네 개나 세 개의 소규모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과서의 경우 탐구활동은 각 단원마다 한두 개 정도가 있고, 각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집중 탐구 활동과 중단원 마무리 활동이 있다. 또한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핵심 정리와 경제 용어 퍼즐이라는 크로스워드 퍼즐이 제시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생활경제』나 미국 경제 교과서 *EPA*와 비교하면, 개념 설명이나 내용 제시에 비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 활동이 부족한 편이다.

이들 세 교과서의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을 보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했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관련 교과서와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 교과서는 제시된 정보의 내용이나 정보의 다양성과 충분함 그리고 활동의 다양성이나 활동의 성격의 측면에서 하나의 종합적인 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비교적 압축적으로 많은 양의 내용과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각각의 개념이나 정보에 대한 내용의 충분함, 상세함, 다양함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며, 또한 같은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문맥에서 살펴봄으로써 응용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2. 양국 경제 교과서의 내용 비교: 희소성(scarcity)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어떤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생각하려면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이 되는 개념이나 지식을 분명하게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회비용이나 희소성 개념을 통해서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필수 요소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 교과서들이 희소성과 기회비용이라는 두 개념을 어떻게 제시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제시된 정보의 완성도나 충분함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정보나 지식 측면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두 나라의 교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경제학의 기본개념인 희소성과 기회비용을 예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장 앞서서 소개하거나 다루는 개념이 희소성과 기회비용이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교과서에서도 두 개념은 가장 앞서 다루어지고 있다. *EPA*의 제1장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섹션 1에서 'Scarcity and Factors of Production(희소성과 생산 요인들)'을, 섹션 2에서 'Opportunity Cost(기회비용)'를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생활경제』도 소단원 제2장 '희소성과 경제

적 선택'이라는 주제로 비교적 앞부분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고등학교 경제』 역시 두 번째 단원 '경제생활과 합리적 선택'이라는 단원에서 희소성과 기회비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 각 교과서가 희소성과 경제적 기회비용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양국 교과서의 내용 비교: 희소성과 기회비용

	고등학교 생활경제	고등학교 경제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쪽수	10쪽 (희소성 설명 2쪽) (기회비용 설명 1쪽)	10쪽 (회소성 설명 2쪽) (기회비용 설명 1쪽)	15쪽 (희소성 설명 4쪽) (기회비용 설명 4쪽)
주요 내용	희소성,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의 5단계	희소성,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	희소성,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
사용된 주요 용어들	희귀, 희소, 시장 가격, 재화, 수요, 공급, 자유재, 무상재, 비재화, 합리적 선택의 5단계, 편익, 기회비용, 매몰비용, 정보비용 (15개)	희소성, 경제재, 자유재, 경제 문제,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매몰 비용, 합리적 선택, 경제적 유인, 비용, 편익, 재화, 서비스 (14개)	Need, want, goods, services, scarcity, shortage, land, labor, capital(physical capital, human capital), entrepreneur, trade-offs, opportunity cost, thinking at the margin (13개)

희소성과 기회비용에 대해서 양국 교과서를 표면적으로 비교해보면, 두 개념에 대한 설명이 우리나라 교과서는 세 쪽에 걸쳐서 비교적 간략하게 제시된 반면, 미국 경제 교과서는 총 여덟 쪽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두 가지 주요 경제학적 개념과 맞물려서 소개하고 있는 주요 용어나 개념을 보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각각 열다섯 개와 열네 개의 용어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 미국 교과서는 열세 개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 교과서의 경우, 자원의 희소성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가(needs, want, goods, services, scarcity, shortage, land, labor,

captial, entrepreneur)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 용어들은 희소성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용어들이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과서의 경우, 희귀, 희소, 재화, 수요, 공급, 경제재, 무상재, 자유재, 비재화 등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한다. 이들 용어들은 희소성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어, 희소성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한 용어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연관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용어들이다. 특히 이들 용어들이 요즘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한자어(漢字語)일 뿐만 아니라, 자원의 희소성을 설명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용어라기보다는 희소성을 보다 경제학적으로 상세하게 구분하기 위한 이차적인 개념들이다. 즉,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경제학적 맥락에서 희소성의 개념이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이라기보다, 희소한 자원으로서의 자원과 그렇지 못한 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원들을 구분하고 확장하기 위한 개념들이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경제 교과서들은 적은 분량으로 개념을 매우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비교적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적거나 확장된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미국 경제관련 교과서는 하나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

1) 희소성에 대한 정의 및 설명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scarcity’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면, 우리나라 생활경제 교과서는 ‘scarcity’의 개념을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생활경제는 ‘희소성과 경제적 선택’이라는 주제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아래와 같이 ‘희소성’을 설명한다.

>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하다. 그 중에는 수나 양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이때, 어떤 것의 개체 수나 양이 아주 적을 때, 우리는 그것을 희귀(rare)하다고 한다. 멸종 위기에 있는 희귀 동식물이 그런 것이다. 희귀하다는 것이 절대적인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비해 희소(scarcity)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나 양이 적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희귀병과 같이 아무리 희귀한 것이라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희소한 것이 될 수 없고, 반대로 금과 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이 많아도 사람들이 원하는 양이 그보다 훨씬 더 많다면 희소한 것이 된다.(15쪽)

위 설명을 보면,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희소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희소성과 희귀성을 구별하기 위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아무런 도입이나 배경 설명이 없이 직접적으로 희귀(稀貴)하다는 것과 희소(稀少)하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 희귀하다는 것과 희소성을 비교해서 희소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고 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을 나란히 소개함으로써 오히려 희소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준다.

위의 설명을 보면, 희소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나 양이 적은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실제 경제학에서 희소성을 설명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 줄로 설명함으로써 그런 중요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양이 많아도 희소할 수 있고, 양이 적은 것이 희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된다. 결국, 몇 개의 문장들 속에 희귀, 희소, 금이나 희귀병과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희소성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 내용을 문장 단위별로 상세히 분석해보면,

(1)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하다.

-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양적으로 유한하다. 대개의 경우 그

럴 것 같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

(2) 그 중에는 수나 양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유한하지만, 그 중에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3) 이때, 어떤 것의 개체 수나 양이 아주 적을 때, 우리는 그것을 희귀(rare)하다고 한다.

- 개체 수나 양이 매우 적을 때, 그것을 희귀하다고 부른다. 즉,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그 중에서 개체 수나 양이 아주 적은 경우에 희귀하다고 한다.

(4) 멸종 위기에 있는 희귀 동식물이 그런 것이다.

- 희귀하다는 것의 예로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이 희귀한 것들이다. 물론 이렇게 보면 동식물만 희귀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 중에 양이 매우 적으면 그 모든 것들을 희귀하다고 부를 수 있다. 최근에 희토류와 같은 것도 희귀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양이 아주 적은 희귀한 것들은 많이 있다.

(5) 희귀하다는 것이 절대적인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비해 희소(scarcity)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나 양이 적은 것을 말한다.

- 희귀하다는 것이 절대적인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반해서, 희소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나 양이 적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이 글에서 비로소 희소의 개념이 등장한다. 마치 희귀하다는 것과 희소하다는 것이 모두 중요한 개념으로 소개된 듯하며, 희귀하다는 것과 희소하다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 같다. 또한 희소하다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희귀하다는 것과의 구별이 필요할 듯하다. 희귀하다는 개념은 절대적인 양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라면, 희소하다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6) 따라서 희귀병과 같이 아무리 희귀한 것이라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희소한 것이 될 수 없고, 반대로 금과 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이 많아도 사람들이 원하는 양이 그보다 훨씬 더 많다면 희소한 것이 된다.
-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 여전히 희귀병과 금을 비교하면서 희소와 희귀를 동등하게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 개념인 희소성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교과서는 희소성을 단독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소와 희귀를 동시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희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치 희귀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 같고, 희귀하다는 것과 희소하다는 것을 비교해서 구분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이 동시에 소개됨으로써 여전히 희소하다는 것이 정확히 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도 '희소성의 의미'라는 단원에서 약 한 쪽 분량으로 희소성 개념을 다루고 있다. 간략하게 희소성 개념을 설명하고, 이어서 희소성이 있는 경우와 희소성이 없는 경우를 설명한다. 더불어서 희소성이 있는 경우와 희소성이 없는 경우를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재와 자유재 개념을 비교하면서 희소성을 설명한다.

> 경제학에서의 희소성은 갖고 싶어하는 욕망에 비해 존재량이 적은 것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존재량이 적더라도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 재화는 희소성이 없는 것이고, 존재량이 많더라도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재화는 희소성이 있는 것이다.(24쪽)

비슷한 설명 같지만, 위 설명이 갖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 "욕망에 비해"라고 비교의 대상으로 인간의 욕망을 언급하고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추가되거나 그런 측면을 강조하지 않으면, 한 문장으로 욕망, 존재량, 그리고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논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재화의 희소성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희소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희소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보편적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위 교과서의 설명을 보면, 희소성은 양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면 희소할 것 같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희소하지 않을 것 같은 식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위 교과서의 정의에 의하면 희소하다는 것은 보편적 조건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해된다.

이 교과서의 다른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희소성의 정의를 보면, “이처럼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양에 비해 그 존재량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희소성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대부분의 재화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대개는 부족하다. 여기서 원하는 것과 존재하는 양 사이에 일반적인 격차가 발생하며 이를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희소성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며 연결고리인지 한 문장의 설명만으로 부족하다.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두 교과서를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서) 존재량이 부족한 것을 경제학적으로 희소하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생활경제』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적 자원은 다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원하

는 만큼 가질 수가 없으며, 그 중 일부는 선택하고 다른 일부는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희소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자원의 'scarcity'라는 개념이 인간이 존재하는 데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와는 약간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설명을 읽으면, 자원의 존재량이 부족하고 희소하기 때문에 마치 자원을 절약하고 아껴야 할 것 같다.

이 점은 미국 경제 교과서 *EPA*와 명확히 구별된다. 미국 Prentice Hall의 *EPA* 경제 교과서는 첫 부분에서 자원의 불충분함(insufficiency)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특이한 점은 scarcity[8]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근본이 되는 불충분하다는 조건을 이야기 방식(narrative)으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다. 즉,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관련해서 가정, 기업, 미국 의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가상의 경제적 상황을 제시한다.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 방식으로 설정하고 비로소 경제학에서 자원의 불충분함과 선택의 개념을 소개한다. 논리적 연결 고리를 생각하면, 인간은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기 때문에-즉,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선택을 고려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욕망에 비해 불충분함을 의미하는 'scarcity'에 대한 설명을 보면,

>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8) 우리나라 경제 교과서는 대개 scarcity를 희소성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scarcity를 희소성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불충분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번역으로 보인다.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저자가 scarcity의 올바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충분함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맥락에서 보편적으로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scarcity를 가리킬 때는 희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록 한 사람이 수백 개의 농구공이나 연필 또는 피아노를 살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무한히 제공받을 수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핵심적으로 경제학은 이런 불충분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9] (4쪽)

비교적 설명이 논리적이고 명확하다. 사람들의 무한한(unlimited)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goods)이나 서비스(service)는 제한적이고(limited), 따라서 충분하지 않은 조건 때문에 매일 부딪히는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징적인 것은 불충분함(scarcity)을 설명하는 논리의 출발점이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있다. 이 교과서는 불충분함(scarcity)이 나타나는 조건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충분함의 조건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논리 구조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1)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2)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채울 자원은 유한하다.
(3) 그래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경제』:
(1) 자원은 부족하다.

9) 원문은 다음과 같다. “All of the goods and services we produce are scarce. Scarcity implies limited quantities of resources to meet unlimited wants. While one person might be able to buy hundreds of basketballs or pencils or pianos, no one can have an endless supply of everything. Sooner or later, a limit is always reached. At its core, economics is about solving the problem of scarcity.”

(2) 인간의 욕망을 모두 채울 수 없다.
(3) 그래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다른 미국 교과서도 *EPA*와 설명하는 논리가 다르지 않다.

> 우리는 이 텍스트에서 경제학을 불충분의 과학이라고 정의한다. 보다 완벽하게 말하면, 경제학은 원하는 것이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동원 가능한 한정된 자원보다 크다고 하는 사실을 개인이나 사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다루는 과학이다.[10] (Arnold, 2008: 2)

이 교과서도 상대적 조건에 관계없이 자원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욕망이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고, 따라서 이런 모순-자원의 불충분함(scarcity)-을 다루는 것이 경제학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논리를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그 어떤 경우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그런 불충분한 조건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으며,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포기할지 항상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학의 기본 전제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비교해서, 희귀하다는 개념과 비교할 것도 없으며, 양의 상대적 많고 적음의 문제에서 불충분함(scarcity)은 비교적 자유로운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런 불충분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원의 많고 적음은 이 개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

---

10)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define economics in this text as the science of scarcity. More completely, economics is the science of how individuals and societies deal with the fact that wants are greater than the limited resources available to satisfy those wants.”

이렇게 보면, 양국의 교과서에서 희소성을 설명하는 데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 교과서에서는 인간이 가진 무한한 욕망과 그런 욕망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없는 불충분한 자원의 실존적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불충분함(scarcity)이다. 이런 조건은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상존(常存)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선택이나 합리적 선택의 문제는 거의 모든 인간 활동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학적 선택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있다고 볼 수 있다.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개별 지식들이 서로 낱개로 존재하는 것보다 하나의 스키마(schema)를 이루면서 지식과 지식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연결될 필요가 있다. 물론 텍스트는 유기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보나 개념들이 논리적 일관성(consistency)이나 응집성(coherence)을 가지고 제시될 필요가 있다(Bransford et al., 2000; Tapiero, 2007). 물론 독자가 인지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배경 지식, 어휘, 문장의 구조, 연결 상태 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 교과서에서는 설명이 불충분하고 매우 압축적으로 응집되어 있으며,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희소성: 애매한 번역이 주는 개념의 혼란

이런 개념의 설명뿐만 아니라, scarcity의 번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양국 교과서에서 scarcity를 설명할 때, 재화나 서비스의 양적(量的) 조건을 두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 *EPA* 교과서는 scarcity의 상태를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설명하지만, 『고등학교 생활경제』나 『고등학교 경제』는 '부족한 상태'로 설명한다. 이런 차이는 아마도 영어 단어 'scarcity'

와 ‘scare’를 ‘희소’라는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 같다.

영어 단어의 ‘scarce’는 우리말의 희소와는 약간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영어 ‘scarcity’나 ‘scarce’의 뜻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보면, 요구나 필요에 충분하지 않은 상태나 제한적인 상태를 가리킨다.[11] 실은 희소하다는 번역보다, 필요나 욕망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상태’, ‘불충분한 상태’, ‘제한적인 상태’, ‘한정된’, ‘유한한’, ‘불충분함’ 또는 ‘충분하지 않음’ 등의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scarcity’ 본래의 뜻에 가깝다.

희소성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EPA*에서 사용된 어휘를 보면, ‘scarcity’ 또는 ‘scarce’가 가장 빈번히 사용되어서 이 단원에서만 총 스물아홉 번 등장하고, 이들 표현은 제한적 또는 한정적(limited)’이라는 단어와 불충분한(insufficient)이라는 단어와 호환해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부족한’, ‘드문으로’ 번역했고, 두산동아는 ‘부족한’, ‘드문’, ‘모자라는’, YBM은 ‘부족한’, ‘불충분한’, ‘모자라는’, 교학사 사전은 ‘부족한’, ‘결핍한’, ‘조금밖에 없는’, 슈프림 사전은 ‘조금밖에 없는’, ‘불충분한’, ‘귀한’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scarcity’를 ‘희소성’이나 ‘부족하거나 드문 상태’라고 번역함으로써 개념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12]

---

11) 메리안-웹스터 온라인 사전은 “deficient in quantity or number compared with the demand,” Merrian-Webster Online dictionary,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scarce, 다른 온라인 사전은“insufficient to satisfy the need or demand; not abundant” 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scarce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단어는 세속 라틴어에서 고대 프랑스어 ‘échars’ “insufficient, cramped,” and “stingy.”가 되었고, 고대 북부 프랑스 단어 형태인 ‘escarse’를 중세 영어에서 차용해서 ‘scarse’로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단어 형태가 1,300년경에 등장하며, 여기에서도 “Insufficient to meet a demand or requirement”로 정의하고 있다.

12) 『고등학교 경제』는 새뮤얼슨은 기본적 경제 문제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경제학은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이용하여 어떻게 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한 학문이다”(26쪽)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말 ‘희소한’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전히 경제학적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희소하다'는 의미와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희소하다'는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희소하다'는 의미는 다시 '희귀하다'는 의미는 물론 다른 유사한 의미들과 구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자원의 불충분함이라는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실은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개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이 개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이후의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등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생활경제』나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경우, 희소성의 개념이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자유재(free goods, 自由財), 무상재(無償財), 비재화(非財貨) 등과 같은 개념을 소개한다. 아마도 저자의 입장에서 희소한 가치를 갖지 않고 무한한 양을 갖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한 의도로 볼 수 있지만, 희소성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으로 자원이 희소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는 개념과 그것이 경제학은 물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자원의 희소성이 보편적 현상이고 선택은 필연적이며 그런 선택에서 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식과 창의적 문제해결 및 확산적 사고와 관련하여, Mumford, Medeifos와 Partlow(2012: 39)는 창의적 사고를 하는데 상호 배치되는 정보를 갖고 있거나 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창의적 사고를 하는 데 다양한 정보나 개념에 대한 지식을 갖

정의로 이것을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어사전에 정의된 일반적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형용사의 의미는 일반 국어사전에 정의된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희소한은 자원이 드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이고 관련이 있는 정보나 결정적이며 관련된 지식(critical, relevant, information and critical, relevant, knowledge)”을 갖고 있는 것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창의적 사고와 지식의 역할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Friedrich와 Mumford(2009)가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과제를 제시하고 한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상호 모순되는 정보를 제시하고, 다른 한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상호 모순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상호 모순된 정보를 갖지 않은 학생들이 보다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또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서로 관련이 적은 상황이나 개념을 서로 나란히 배열하는 것은 이해를 돕는 데 장애가 된다(Schank, 1975; Trabasso et al., 1984).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등학교 생활경제』나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가 희소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대비되는 때로는 파생된 다양한 개념을 압축된 적은 내용 속에서 소개하는 것은 그런 대비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한 장치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차적인 개념들은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인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자원의 유한성 또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를 설명하는 scarcity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 근본 개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의 문제나 선택과정에서 기회비용의 개념을 소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고등학교 경제』에서 선택의 문제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재화의 희

소성으로 인해 인간은 항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26쪽)고 기술하고 있다.[13] 그런데 이런 설명에 앞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경제재와 자유재에 대한 소개가 있고, 재화에는 희소성이 있는 것이 있고, 희소성이 없는 것이 있다는 설명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즉, 이 책을 읽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재화의 전반적인 희소성에 대한 이해보다는–희소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대전제–오히려 경제제와 자유재, 무상재 등의 개념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재화의 희소성 때문에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선택의 보편성은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하다.

비교해서 *EPA* 교과서를 보면, 재화나 서비스는 인간이 가진 욕망이나 필요에 비해서 항상 충분하지 않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필연적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교과서의 예를 보면, 백만장자처럼 엄청난 재산을 가진 경우라도 그들이 가진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한정된 재화와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사람들의 무한한 욕망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설명이 전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재화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의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

13) 이 문장에서 희소성을 일반 단어의 의미로 해석해서 매우 드물고 적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상대적 희소성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이 문장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이 문장을 쉽게 풀어서 쓰면, "인간이 원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조건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다.

4) 기회비용에 대한 정의와 설명

기회비용은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김종철・장경호, 2014). 경제학에서 희소성과 관련하여 함께 등장하는 개념이 기회비용이기도 하며, 인간이 가진 무한한 욕망과 그 욕망을 채우기에 부족한 재화나 서비스를 적절히 얻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기회비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생활경제』와 『고등학교 경제』 및 *EPA* 교과서도 기회비용을 희소성과 함께 다루고 있지만, 이들 교과서들이 기회비용을 소개하고 다루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과서는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절차'라는 제목으로 합리적 선택의 개념에서 기회비용을 다룬다. 소개하는 순서를 보면, 합리적 선택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 기회비용을 소개한다. 특히,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절차'라는 제목으로 합리적 선택의 절차를 두 쪽에 걸쳐서 상세하게 소개한다. 이 책의 앞에서 다룬 희소성과 연결해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기보다, 또 다른 독립적인 맥락에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과서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소단원의 시작 부분을 보면,

> 합리적 선택이란, 재화로부터 예상되는 여러 가지 편익과,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18쪽)

라고 되어 있다. 이 글에서 재화가 무엇을 가리키고, 편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이 두 용어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렇게 소단원 3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합리적 선택의 5단계를 제일 먼저 상세

하게 제시할 뿐, 앞 단원에서 소개했던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사이에 어떤 논리적 연관성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 교과서는 합리적 선택의 5단계를 소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3단계에 기회비용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제시된 순서로 보면, 이후에 기회비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 책을 읽고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소개되지도 않은 개념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어서, 해당 교과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경제학적 개념을 제시한다. 하나는 '편익'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비용'이다. 문제는 '편익' 개념은 이미 앞에서 합리적 선택을 설명할 때, 아무런 정의나 설명도 없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급된 편익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있다. 편익이 경제학 용어이고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 실은 앞에서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할 때 용어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제공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나 이 교과서에서는 처음 용어를 제시할 때 설명이 없다가, 뒤에서 새롭게 용어에 대한 설명과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도 비교적 간단하다. 이 교과서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보통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여야 하는 다른 선택 기회의 가치로 정의된다."(21쪽)고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 하나의 문장으로 기회비용을 정의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Beck et al.,(1991)의 지적대로 이런 복잡한 개념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교과서는 희소성을 소개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간단히 기회비용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과 암시적 비용(implicit cost)을 소개하고, 이어서 매몰 비용, 정보 비용을 소개한다. 따라서 이 교과서는 적은 분량으로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이들 다양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14] 이처럼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과서는 기회비용을 다루면서, 명시적 비용, 암시적 비

용, 매몰 비용, 정보 비용 등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기회비용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끝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교과서를 읽는 경우 기회비용과 희소성 그리고 합리적 선택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가 미약해서 이들을 하나의 개념 틀 안에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서로 하나의 틀 속에 치밀하게 연결되어 스키마(schema)[15]나 또는 의미 단위로 연결된 응집성이 높은 통일된 구조물로 존재하기보다, 서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Gernsbacher, 1990).

『고등학교 경제』도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이라는 소단원에서 기회비용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위의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과서와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기회비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교과서 한쪽 분량이다. 기회비용에 대한 정의를 보면, “두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대안의 가치를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27쪽)라고 설명한다. 다른 기회비용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만약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3가지 이상 있을 경우,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 된다.”고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이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의 전부다.

이어서 이 교과서는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그리고 매몰 비용을 소개한다. 전체적으로 기회비

---

14) 대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소개하기보다 이런저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한계는 대개 교과서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생활경제 교과서의 저자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집필 지침을 따르다 보면, 여러 다양한 용어나 개념을 소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2014년 2월, 개별 대화).

15) 여기서 스키마 형태의 지식은 인지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서로 개념적으로 연결된 심리적이며 추상적인 지식 체계를 가리킨다(Hunter, Bedell-Avers, Hunsicker, Mumford & Ligon, 2008. 참조).

용과 합리적 선택이라는 단원에서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은 한 쪽 분량으로 그치고, 기타의 개념들이 네 쪽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개념을 소개하는 순서를 보면, 희소성 개념에 이어, 선택과 기회비용 그리고 합리적 선택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생활경제 교과서와 다르고, 미국 *EPA* 교과서와 비슷하다.

미국 교과서 *EPA*도 기회비용 개념을 희소성 개념에 이어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기회비용을 설명하는 출발점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된다는 개념(trade-offs)이다. "we gain one thing but lose something else." (O'Sullivan & Sheffrin, 2007: 8). 즉, 'trade-offs'가 기회비용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결 고리가 된다. 우리가 처한 희소성 조건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trade-offs'는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 가능했던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EPA 교과서에서 trade-offs는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나 정부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trade-offs'의 개념을 '총과 버터'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총을 생산하는 데 더 투자하기로 결정하면, 버터와 같은 소비재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은 감소한다. 생산된 철강은 희소하기 때문에 총이나 탱크와 같은 무기를 만드는 데 소비하면,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철강은 충분하지 않다. 앞 장에서 설명했던 자원의 불충분성(scarcity) 개념-경제학의 기본 출발이 되는 자원이 사람들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다-과 기회비용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 교과서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포기하게 되고 그것이 'trade-offs'의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의 결과로 포기한 가장 나은 차선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The most desirable alternative given up as the result of a decision is called the opportunity cost)."(9쪽)고 설명한다.

이렇게 *EPA* 교과서의 경우, 설명이 상세하고 내용 소개가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쉽다. 또한 핵심 개념인 기회비용을 소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관련 개념들을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기회비용은 '희소성-선택-trade off-기회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념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교과서에서는 'trade-offs' 개념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는 "희소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은 종종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다준다. 모두 가지고 싶지만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예쁜 장난감도 가지고 싶고 맛있는 과자도 먹고 싶지만,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작은 고통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라고 'trade-offs'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편,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다. 특히, 생활경제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회비용과 *EPA* 교과서가 정의하고 있는 기회비용은 차이가 있다. 생활경제에서는 기회비용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보통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여야 하는 다른 선택 기회의 가치"로 정의했다. 그러나 *EPA* 교과서는 어떤 결정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기회비용이라고 정의했다.

위의 정의와 비교해서 『고등학교 경제』도 『고등학교 생활경제』와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법문사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와 위키피디아 영문판에서는 기회비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는 다른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데, 포기한 것 중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선택한 것의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법문사 『중학

교 3학년 사회』, 2011: 185)

미시경제 이론에서, 선택의 기회비용은 제한된 자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개의 상호 배타적인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하지 않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의 가치를 가리킨다.[16] (위키피디아 영문판: http://en.wikipedia.org/wiki/Opportunity_cost)

코넬대학교의 경제학과 자유 도서관이 제공하는 설명에서도 기회비용을 "경제학자들이 자원의 기회비용을 가리킬 때 . . . 그 자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의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활용 가치를 의미한다."[17]라고 정의한다. 즉, *EPA* 경제 교과서, 위키피디아, 그리고 코넬대학교 경제학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회비용의 정의는 동일하지만, 생활경제에서 제공하는 기회비용의 정의는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과서가 설명하는 것처럼, 기회비용은 하나를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못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못한 가장 최선의 선택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그 다음 가장 차선이 되는 선택이 기회비용이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두 개 있다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가 기회비용이 되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세 개 이상이라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두 개 이상의 대안 중에서 가장 많은 편익 또는 가장 많은 가치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이 기회비용이 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16) 원문, "In microeconomic theory, the opportunity cost of a choice is the value of the best alternative forgone, in a situation in which a choice needs to be made between several mutually exclusive alternatives given limited resources."

17) 원문 "When economists refer to the "opportunity cost" of a resource, they mean the value of the next-highest-valued alternative use of that resource." http://www.econlib.org/library/Enc/OpportunityCost.html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과서의 설명은 학생들에게 개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교과서에서 기회비용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두 개의 선택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그 어떤 것으로 기회비용을 잘못 일반화할 수 있다.

EPA 경제 교과서를 보면, 기회비용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대안을 포기하는 것이며-그것이 trade-offs의 개념이 된다- 그만큼의 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좋아서 어떤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다른 어떤 선택 가능한 것을 포기한 것이 되며, 때로 그 포기한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선택에 대해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신중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기회비용 개념이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미국 교과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치밀한 논리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제시되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활경제』나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는 설명이 간단하거나 불충분하며 추가로 제시되는 다른 개념들 때문에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란스럽다.

읽기 이해 연구에 의하면,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나 질문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의 문제 등은 모두 이해를 돕는데 기여한다(Hunter, Bedell-Avers, Hunsicker, Mumford & Ligon, 2008; Walczyk & Hall, 1989). 그런 면에서 단편적 지식을 제공하고, 몇 몇 제한된 사례를 제공하기보다 개념 지식과 함께 구체적인 다양한 사례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양국의 경제 교과서에서 기회비용과 관련하여 제시된 구체적 사례를 비교해보면 뚜렷한 차이가 있다.

<표 2> 양국 교과서의 기회비용 사례 비교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생활경제	고등학교 경제
일을 하기로 결정/영화나 야구경기를 보는 것 포기	빵과 아이스크림을 고민하다가 빵을 선택	고교 축구 선수가 유명 사립대학과 프로 축구팀으로부터 동시에 입단 제의를 받음
축구경기를 선택/파트타임 일을 포기	빵을 사 먹을까 고민하다가 빵을 사기로 결정	X재 1개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Y재 1개의 생산을 줄임
농부가 브로컬리를 심기로 결정/컬리플라워 심는 것을 포기	자장면, 칼국수를 놓고 고민하다가 자장면을 선택	어느 농가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과 가치에서 뭘 생산할 것인가 (수박, 고추, 오이)
공장에서 의자를 생산하기로 결정/테이블이나 데스크를 생산하는 것을 포기	3천원으로 자장면을 사 먹을까 말까/사 먹기로 결정	1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할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국가가 무기를 생산하기로 결정/우유나 식품공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포기	연극을 볼까/영화를 볼까 선택에서 연극을 보기로 결정	약사가 고용약사로 근무할 것인가, 아니면 약국을 개업할 것인가
늦게 잘 것인가/일찍 일어나서 스키를 탈 것인가	급식비 지원과 청소년 체육시설 건설에서 청소년 체육시설 건설로 결정	
늦게 잘 것인가/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할 것인가		
늦게 잘 것인가/일찍 일어나서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3가지 서비스를 나열하고, 각각의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회비용		
친구에게 100불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친구는 1년 후에 이것을 갚았다. 그러면 이 돈을 빌려준 결과 감수하게 된 비용		
각각의 기회비용: 피자를 먹는 것, 화요일 영화를 보러 가는 것, 토요일 영화를 보러 가는 것, TV를 보는 것.		

말레이시아에서 두 대의 전함을 구입했다. 이는 물 부족에 시달리는 500만 명의 국민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가치다.		
군인들을 민간인 교사로 대체했을 때 기회비용		
방과후 일을 할 때, 2시간, 4시간, 6시간을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		
고용주가 추가로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회비용		
다른 도시에서 차를 구입하면 50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도시에 가는 비용이 10불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이유는 뭔가?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세 가지 서비스를 생각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친구에게 100불을 빌려주고, 일 년 후에 돈을 받았다. 이 경우에 돈을 일 년 동안 빌려준 기회비용은?		

위 표를 보면, 기회비용과 관련하여 제시된 사례에서 교과서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Prentice Hall *EPA* 교과서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예시들은 일관되게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묻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사회, 정부의 차원 등 다양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선택과 기회비용이 여러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생활경제』 교과서나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는 제한적인 일상의 개인적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 교과서는 기회비용과 관련하여 기회비용을

수식으로 계산하는 과제들이 주를 이루지만, 미국 교과서는 그런 계산 문제는 거의 없다. 연구에 의하면 실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한 경제학적 배경을 가진 경우에도 쉽지 않다(Ferrao & Taylor, 2005; Frank, 2005; O'Donnell, 2009). 기회비용이 합리적 선택과 어떤 선택에 따른 희생이나 비용을 고려한 개념이라면, 이제 막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기회비용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수학적으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것보다 선택의 trade-off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김종철·장경호, 2014).

Ⅴ. 결론 및 제언

미국과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세 권의 경제 교과서에서 희소성과 기회비용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의 읽기 이해라는 측면에서 이들 교과서들이 텍스트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비교해보았다.

비교된 교과서들은 같은 내용이나 개념 그리고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설명하는 방식에서 텍스트의 명료함, 충분함, 단계성, 사례나 예시의 제시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두 권의 우리나라 경제 교과서는 개념의 이해나 개념의 적용이나 응용에 필요한 충분하고 단계적이며 명료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내용을 기술하고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열하고, 단어와 문장을 어떻게 배열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려운 경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읽기 이해라는 측면에서 고려가 부족했다. 또한 학생들이 경제 현실을 이해하고 경제 문제를 보다 창의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며, 그런 지식은 단순한 사실에 대한

명시적이며 압축된 언어로 표현된 지식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나 사례를 이용하여 표현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두 권의 우리나라 경제 교과서는 비교적 핵심 개념을 충분히 그리고 다양하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부딪힐 수 있는 현실의 구체성이 반영된 내용이 부족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교과서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보완해 보다 풍부하고 상세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교과서의 내용만으로 우리나라 중등의 경제교육에서 지식 습득이나 내용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반화할 수는 없다.

또한 세 권의 경제관련 교과서를 비교하는 것으로 양국의 경제관련 교과서의 특징을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두 권의 교과서가 생활경제와 고등학교 경제를 대변하는 교과서로 분석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교대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는 남는다. 이 점은 추후에 보다 다양한 교과서를 비교함으로써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양국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교과서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면, 미국과 같은 문화권에서 교과서는 단지 여러 학습 자료의 하나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교과서가 제작되는 과정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많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결국 교과서의 분량, 내용, 질을 결정하기도 한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교과서를 비교할 때 이런 현실적인 제약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경제 교과서라고 해서 경제학자들이나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들만 집필자로 참여하는 것보다, 국어교육학자나 읽기나 작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내용설명은 적절한지, 단어의 사용이나 문장의 길이는 적절한지, 글의 내용이

나 전개가 일관성과 응집성을 갖고 있는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픽이나 다이어그램을 비롯한 어떤 장치나 정보들이 필요한지 참여하고 조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그런 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교사의 불필요한 많은 개입을 필요로 하며, 교과서가 독립적 학습의 도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국어교육에서 읽기 이해라는 측면에서 다른 내용교과의 교과서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나 읽기 모형을 토대로 실증적 연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기세훈 외 6인(2011), 『중학교 사회 3』, 법문사.

김종철·장경호. (2014), 「합리적 소비 선택에서 기회비용 개념의 의미」, 『경제교육연구』 21-1, 한국경제교육학회, pp.1-24.

김종호·차조일(2011), 『고등학교 경제』, 도서출판 씨마스.

노명완(1996), 「'읽기 능력 신장과 교육 내용의 구조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국어교육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229-233.

박복순(2005), 「텍스트 서술 양식에 따른 학습자 선호도와 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중학교 세계지리 단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창남·이승철·류형선(2012), 「창의성 개발에 대한 지식교육적 접근」, 『창의력교육연구』 12-3, 한국창의력교육학회, pp.173-185.

소경희(2003), 지식기반사회의 맥락에서 본 '창의성'의 의미 및 그 개발을 위한

* 이 논문은 2014. 4. 30. 투고되었으며, 2014. 5. 13. 심사가 시작되어 2014. 6. 4.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4. 6. 5.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방법론적 논의,『교육학연구』41-3, 한국교육학회, pp.147-166.
오영수(2011),『고등학교 생활경제』, 교학사.
이성영(2011).「초등 교과서의 이독성 비교 연구-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를 중심으로」,『국어교육학연구』41, 국어교육학회, pp.169-193.
이혁규(1998),「사회과에서의 창의적 사고력 교수-학습 방안」,『초등사회과교육』10, 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pp.33-56.
조국남·박성혁(2005),「사회과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시민교육연구』37-2, 한국사회과교육학회, pp.107-131.
주태연(2008),「텍스트의 내러티브 서술양식이 학업성취도와 과목선호도에 미치는 효과: 고등학교 '사회·문화' 과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소옥(2000),「내러티브를 통한 中學生의 歷史 理解」,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용규(1998),「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사고」,『초등사회과교육』10, 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pp.13-32.
Anderson, R., Reynolds, R., Schallert, D. & Goetz, E.(1977), "Frameworks for comprehending discours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4-4, pp.367-381.
Armbruster, B., Anderson, T. & Meyer, J.(1991), "Improving content-area reading using instructional graphic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6-4, pp.393-416.
Arnold, R. A.(2008), *Macroeconomics (9th Ed.)*.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Baer, J.(2003), "The impact of the core knowledge curriculum on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5(2 & 3), pp.297-300.
Beck, I., McKeown, M., Sinatra, G., & Loxterman, J.(1991), "Revising social studies text from a text-processing perspective: Evidence of improved comprehensibility", *Reading Resarch Quarterly* 26-3, pp.251-276.
Beck, L., McKeown, M., Omanson, R.(1987), "The effects of and uses of diverse

vocabulary instructioanl techniques", In M. G. McKeown & M. E. Curtis(Eds.), *The nature of vocabulary acquisition,* Hillsdale, NJ: Erlbaum., pp.147-163.

Beck, L., Omanson, R., & McKeown, M.(1982), "An instructional redesign of reading lessons: Effects on comprehenison", *Reading Research Quarterly* 17, pp.462-481.

Black, J.B., & Bern, H.(1981), "Causal coherence and memory for events in narrative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0, pp.267-275.

Bohm, A.(1998), *On Creativity*.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Bransford, J. D., Brown, A., & Cocking, R.(Eds.)(2000), *How people lear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Britton, B., Dusen, L., Gulgoz, S., & Glynn, S.(1989), "Instructional texts rewritten by five expert teams: revisions and retention improvem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pp.226-239.

Cho, H., & Kim, Y.(2012), "Correlation between the biological knowledge and the creativity in biological modeling," *Biology Education,* 40-1, pp.61-70.

Duffy, T. M., HIggins, L, Mehlenbacher, B., Cochran, C., Wallace, D., Hill, C., Haugen, D., McCaffrey, M., Burnett, R., Solane, S., & Smith, S.,(1989), "Models for the design of instructional text", *Reading Research Quarterly* 24-4, pp.434-457.

Ericsson, K. A., & Moxley, J. H.(2012), "The expert performance approach and deliberate practice: Some potential implications for studying creative performance in organization", In M. D. Mumford (Ed.), *Handbook of organizational creativity,* San Diego, CA: Elsevier, pp.141-167.

Ericsson, K. A., Krampe, R. T., & Tesch-Romer, C.(1993), "The role of deliberate practice in the acquisition of expert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100-3, pp.363-406.

Fasko, D.(2000-2001), "Education and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3(3 & 4), pp.317-327.

Ferraro, P. J., & Taylor, L. O.(2005), "'Do Economists Recognize an Opportunity Cost When They See One? A Dismal Performance from the Dismal Science'", *Contributions to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4-1, Article 7.

Friedrich, Mumford(2009), "The Effects of Conflicting Information on Creative Thought: A Source of Performance Improvements or Decrement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1(2-3), pp.265-281.

Gernsbacher, M. A.(1990), *Language Comprehension as Structure Building,*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Gomez, J. G.(2007), "What do we know about creativity?", *The Journal of Effective Teaching* 7-1, pp.31-43.

Guri-Rozenblit, S.(1989), "Effects of a tree diagram on students' comprehension of main ideas in an expository text with multiple them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4-2, pp.236-247.

Hass, R. W., & Weisberg, R. W.(2009), "Career development in two seminal songwriters: A test of equal odd rule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1, pp.183-190.

Hirsch, E. D.(1996), *The schools we need. And why we don't have them,* New York: Doubleday.

Hunter, S., Bedell-Avers, K. E., Hunsicker, C. M., Mumford, M. D., & Ligon, G. S.(2008), "Applying multiple knowledge structures in creative thought: Effects on idea generation and problem-solving,"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0-2, pp.137-154.

Jeon, K., Moon, S., & French, B.(2011), "Differential effects of divergent thinking, domain knowledge, and interest on creative performance in art and math,"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3-1, pp.60-71.

Kintsch, W., & Keenan, J. M.(1973), "Reading rate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propositions in the base struc- ture of sentences", *Cognitive Psychology* 5, pp.257-274.

Klintsch, W., Kozminsky, E., Streeby, W. J., McKoon, G., & Keenan, J. M.(1975), "Comprehension and recall of text as a function of content variable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4, pp.196-214.

Kousoulas, F.(2010), "The interplay of creative behavior, divergent thinking, and knowledge base in students' creative expression during learning ac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2-4, pp.387-396.

Marsh, R. L., Ward, T. B., & Landau, J. D.(1999), "The inadvertent use of prior knowledge in a generative cognitive task," *Memory & Cognition* 27, pp.94-105.

Montanero, M., & Lucero, M.(2012), "Rhetorical structure and graphic organizers: Effects on learning from a history 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Instruction* 5-2, pp.21-40.

Mumford, M., Medeiros, K., & Partlow, P.(2012), "Creative thinking: Processes, strategies, and knowledge,"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46-1, pp.30-47.

O'Donnell, R.(2009), "The concept of opportunity cost: Is it simple, fundamental, or necessary?", *Australasian Journal of Economics Education* 6-1, pp.21-37.

O'Sullivan, A., & Sheffrin, S. M.(2007),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Prentice Hall.

Policastro, E., & Gardner, H.(1999). From case studies to robust generalizations: An approach to the study of creativity. In Robert J. Steinberg (Ed.),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13-225).

Rich, J. D., & Weisberg, R. W.(2004), Creating all in the family: A case study in creative thinking.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6-2-3, pp.247-259.

Sak, U., & Maker, C. J.(2006), "Developmental variation in children's creative mathematical thinking as a function of schooling, age, and knowledge,"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8-3, pp.279-291.

Schank, R. C.(1975), "The structure of episodes in memory", In D. Bobrow & A.

Collins(Eds.), *Representation and understanding: Studies in cognitive science,* New York: Academic Press, pp.237-272.

Sternberg, R. J.(2006), "The nature of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8-1, pp.87-98.

Tapiero, I.(2007), *Situation Models and Levels of Coherence: Toward a Definition of Comprehension,* Taylor & Francis.

Trabasso, T., & Bouchard, E.(2002), "Teaching readers how to comprehend text strategically", In C.C. Block & M. Pressley (Eds.), *Comprehension instruction: Research-based best practices,* New York: Brooks/Cole.

Trabasso, T., Secco, T., & Van Den Broek, P.(1984), Causal cohesion and story coherence, In H. Mandl, N.L. Stein, & T. Trabasso(Eds.), *Learning and comprehension of text,* Hillsdale, NJ: Erlbaum, pp.83-111.

Vitale, M., & Romance, N.(2007), "A knowledge-based framework for unifying content-area reading comprehens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ies", In Danielle S. McNamara(Eds),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ies: Theories, interventions, and technologies,*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pp.73-104.

Walczyk, J., & Hall, V.(1989), Effects of examples and embedded questions o the accuracy of comprehension self-assessments, *Journal of Educational Pyschology* 81-3, pp.435-437.

Weisberg, R.(1999), "Creativity and knowledge: Challenge to theories", In Robert J. Steinberg(Ed.),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26-250.

Wu, C. H., Cheng, Y., Ip, H. M., & McBride-Chang, C.(2005), "Age differences in creativity: Task structure and knowledge base,"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7-4, pp.321-326.

Frank, R.(2005. 9. 1), The Opportunity Cost of Economics Education,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05/09/01/business/01scene.html?_r=0

■국문초록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련 중등 교과서 비교

- 지식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읽기 이해 중심으로 -

이병민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 관련 교과서를 지식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읽기 이해에 초점을 두어 비교 연구하였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주요 창구의 역할을 한다. 특히 경제학과 같은 내용교과의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이나 지식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은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내용교과인 경제관련 교과서를 통해서 개념의 설명, 내용의 제시, 기술의 정확성이나 응집성 등을 읽기 이해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생활경제』 및 『고등학교 경제』, 그리고 미국의 *Prentice Hall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교과서 내용 중에서 '희소성'과 '기회비용'을 소개하는 단원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과서들은 주요한 경제 개념을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개념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운 반면, 미국 교과서는 이야기 방식의 설명과 개념의 명확한 설명, 논리적 연관성을 가진 치밀한 내용 전개, 그리고 다양한 읽기 이해 장치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내용교과에서 교과서는 지식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 분야의 내용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읽기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읽기나 쓰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교과의 교과서에 대한 읽기 이해 측면의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읽기 교육, 읽기 이해, 교과서, 경제, 희소성, 기회비용, 교과서 수정

■ Abstract

A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Economics-related Secondary School Textbooks

- Focusing on Reading Comprehension of the Text to Foster Knowledge and Creativity -

Lee, Byungmin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secondary school content-course textbooks in Korea and the US are written considering cognitive aspects of reading comprehension of the textbooks. Specifically, focusing on two major concepts of economics (scarcity and opportunity cost), the paper examined the explanation and description of these concepts and other related information in terms of how the textual description and contents of the books help students understand and learn information and knowledge through the textbooks. Focusing on three economics-related textbooks from two Korean publishers (*High school Daily Economics*, *High school Economics*), and an American publisher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there appear some important differences in temrs of textual clarity, coherence, diversity, and descriptive styles of contents and other textual features such as examples, cases, graphic organizer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economic concepts. More research in the area of content-course textbooks seems to be necessary.

[Key words] reading instruction, reading comprehension, textbooks, economics, scarcity, opportunity cost, textbook revision